

노동부 천안지청,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당진 '레드존' 주말 안전 사각지대 원천차단

- 당진 중대재해 근절 '레드존 긴급대책'의 일환... 7월 5주부터 릴레이 점검
- 8월 22(토) 주말 취약시간대 지청장·공단 본부장 등 11명 현장 전면 투입
- 기관장 솔선수범 현장 지휘로 '주말·휴일 안전 사각지대 차단' 메시지 전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전준현)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 본부(본부장 오규현)는 당진지역의 잇따른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 선포한 '산업재해 위험지역(레드존+) 6대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8월22일(토) 당진지역 주말 비정형 작업현장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주말 합동 점검을 전격 단행했다.

이날 합동 점검에는 각 기관장을 비롯해 산업안전감독관 및 공단 전문 인력 등 총 11명이 투입되어, 주말 사고 취약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12시 까지 당진지역 주말 비정형 작업현장 등 11개소를 불시 점검하며, 기계 정비 보수 시 빈발하는 끼임·깎임 위험요인을 집중확인하고 관리감독자 지정·배치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

전준현 지청장은 “주말과 휴일은 관리 감독 기능의 공백으로 인해 비정형 작업 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노동부와 공단은 당진 레드존 지역에 대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시 불시 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기 쉬운 주말·휴일 비정형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 중인 ‘세이프 위켄드(Safe Weekend) 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5주차부터 매 주말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이 순환 투입되는 릴레이 불시 점검 방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오는 9월 중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붙임: 산업재해 예방 긴급대책(Redzone+) 6대 항목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박행남 (041-560-2867)
		담당자	팀 장	류 원 (041-560-2852)

- 금년 5~6월에 제조 및 기타업종의 중대재해 발생이 급증하면서 특정 지역에 집중 → 사고가 집중되는 지역·업종에 대해 행정력 집중

「산업재해 위험지역」 지정·알림

- [**산재 위험지역 선정**] ‘당진’ 지역을 산업재해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 경각심 제고
- [**감독·점검 등 행정력 집중**] 레드존+ 대상 지역 소재 사업장 감독·점검 우선 선정

「Safe weekend 프로젝트」 시행

- [**주말 패트롤 점검**] 매주 주말 패트롤 점검을 통해 주말 작업
- [**주말 비정형작업 관리**]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비정형작업이 주말 예정된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모니터링

자체점검 → 핀 포인트(끼임협착) 점검

- [**자체점검**] ‘끼임’, ‘깔림’ 예방에 특화된 자체점검표와 함께 「기관장 서한문」을 발송하여 정부 정책방향 및 메시지 전달
- [**핀 포인트 점검**] 자체점검 미흡 사업장 등에 대해 ‘끼임’, ‘깔림’ 사고예방에 집중하여 핀포인트 점검 실시

지역단위 안전문화 확산 활동

- [**민간 합동 캠페인**]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대해 합동 캠페인 간담회를 통해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극대화
- [**철강협의회 협업 릴레이 캠페인**] 고열작업이 많은 철강업종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협의회 구성사 릴레이 캠페인 추진

C-Level 안전의식 강화 활동

- [**CEO 현장 안전라운드**] 지청장이 CEO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근로자와 소통하는 안전활동(하청 CEO 참여로 파급효과 극대화)
- [**위험성평가 교육**] 당진 소재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

One-day Safety Clinic 운영

- 감독(Inspection)이 아니라 진료(Clinic)의 개념을 접목하여 전문가가 위험 사업장에 대해 “안전 처방”하는 활동 운영
→ NDMS, 산업재해조사표 통해 인지된 사고에 대해 전문가 처방